

7.4.7. 독립제작사 지역별 종사자 현황³⁹⁾

2009년 독립제작사의 지역별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3,882명으로 전체의 81.8%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기도가 615명으로 1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립제작사 종사자 중 서울과 경기도에서 종사하는 종사자수가 전체의 9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36 독립제작사 지역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지역	2008년	2009년	전년대비증감률(%)	구성비(%)
서울	3,885	3,882	▽0.1	81.8
부산	48	49	2.1	1.0
대구	32	33	3.1	0.7
인천	27	27	0.0	0.5
광주	42	42	0.0	0.9
대전	13	13	0.0	0.3
울산	4	4	0.0	0.1
경기도	602	615	2.2	13.0

39) 독립제작사만 해당

지역	2008년	2009년	전년대비증감률(%)	구성비(%)
강원도	34	34	0.0	0.7
충청북도	-	8	-	0.2
충청남도	9	9	0.0	0.2
전라북도	5	5	0.0	0.1
전라남도	6	6	0.0	0.1
경상북도	6	5	▽16.7	0.1
경상남도	11	12	9.1	0.2
제주도	-	4	-	0.1
합계	4,724	4,748	0.5	100.0

표 4.7.37 독립제작사 지역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지역	2008년	2009년	전년대비증감률(%)	구성비(%)
서울	3,885	3,882	▽0.1	81.8
6개광역시	166	168	1.2	3.5
9개도	673	698	3.7	14.7
합계	4,724	4,748	0.5	100.0

종사자수를 6개 광역시와 9개도로 나누어 보면 6개 광역시의 2008년 종사자수는 166명에서 2009년에 168명으로 증가하였고, 9개도의 2008년 종사자수는 673명에서 2009년 698명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서울지역의 집중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그림 4.7.39 독립제작사 지역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